

카이퍼와 스킨더의 신학적 문화론

金 英 漢*

目 次

- | | |
|--------------------|--------------------|
| I. 머리말 | III. 스킨더의 기독교적 문화론 |
| II. 카이퍼의 일반은총적 문화론 | 1. 일반명령론 |
| 1. 일반은총론 | 2. 문화열쇠인 그리스도 |
| 2. 특별은총론 | 3. 문화적 종말론 |
| 3. 칼빈주의 신앙의 문화적 투쟁 | IV. 맺는 말 |
| 4. 칼빈주의 사상의 문화적 공헌 | |
| 5. 문화적 낙관주의 | |

I. 머리말

카이퍼(Abraham Kuyper)와 스킨더(Klans Schilder)는 화란이 낳은 최대의 문화신학자이다. 카이퍼는 그리스도의 왕권에 기초한 문화를 주장했으며, 스킨더 역시 그리스도를 문화의 열쇠로 보았다.

카이퍼는 그리스도 왕권의 통치가 교회 뿐 아니라, 일반문화의 영역 속에 이루어져야 할 것을 역설한다. 카이퍼는 죄와 구원문제가 철저히 개인적이라고 주장함과 더불어 인간의 죄와 구원의 효력은 공동적, 공공적, 사회적, 문화적 영역에 까지 미친다고 본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는 인간사회에 평화, 조화, 단절된 관계의 회복, 불의 제거를 가져온다. 카이퍼는 인간 삶의 모든 영역을 복음의 능력에 의하여 개혁하고자 했으며, 기독교 문화 건설을 위하여 신자들의 조직적인 투쟁을 강조하였다. 카이퍼는 일반은총을 인간문화활동의 기초로서 파악한다. 이 일반은총도 모든 청사와 권세의 머리(골 2:10)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기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카이퍼는 일반은총론에서 문화활동을 설명하고, 문화낙관론을 주장한다.

스킨더는 카이퍼와 마찬가지로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강조한다. 스킨더는 하나님과 역사를 동일시하는 헤에겔의 범신론 사상을 거부하여 양자사이의 구별을 선언한다. 스

* 人文大學 教養科 教授

본 논문은 교내 연구비(1990년도)의 지원으로 작성된 것임(1990년 6월 ~ 1991년 5월)

스킬더는 하나님과 역사 사이의 질적차이와 대립을 주장하는 변증법신학(키에르케고르, 바르트, 볼트만, 톨리히)을 거부하면서 하나님과 자연, 하나님과 역사, 하나님과 피조물, 은총과 자연 사이에는 대립관계는 있을 수 없고,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사이에 대립이 있을 뿐이라고 역설한다.

스킬더는 하나님의 창조시 부여한 일반명령에서 문화적 활동을 설명한다. 스킨더는 카이퍼가 사용하는 일반은총의 개념을 거부할 뿐아니라, 신자와 불신자가 공유하는 공동영역개념까지도 부인한다. 일반명령의 개념에서 설명되는 문화활동은 단편적이며, 인간의 자기 영광만을 추구하는 부패한 문화밖에 산출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 부패한 인간의 문화가 진정하고 바른 문화가 되기 위하여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에 의하여 새롭게 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진노를 가라앉히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순종을 성취시켰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속자이며, 미래의 참된 문화를 성취시키는 보증자요, 문화의 열쇠이다.

카이퍼가 문화론을 일반은총과 특별은총의 원리에서 설명하고자 한데 반해 스킨더는 문화론을 일반명령과 기독교의 원리에서 설명하고자 했다. 양자의 문화론은 기독교적 문화론이라는 공통성을 지니고 있으나, 카이퍼의 문화론은 일반은총론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고, 스킨더의 문화론은 기독교론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다.

II. 카이퍼의 일반은총론적 문화론

1. 일반은총론

아브라함 카이퍼(1837~1920)는 화란 최대의 개혁주의 문화신학자이다. 카이퍼는 현대사회가 나아가는 중앙집권적 경향을 예견하고, 이것을 방지하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속에 그리스도의 왕권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카이퍼는 그의 사상을 “영역주권 사상”(thought of sphere sovereignty)으로 표현하였다. 창조의 각 영역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 고유한 질서와 법칙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영역에 의해서 지배되거나 통합될 수 없다. 모든 창조의 영역은 다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 대등한 상호관계를 갖고 있으며, 위계적으로 지배관계나 종속관계에서 있는 것이 아니다.¹⁾ 카이퍼는 화란자유대학(1880년)을 설립하여 학문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왕권을 수립하려고 하였고, 인간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왕권을 세우고자 하였다.

카이퍼는 문화론을 그의 유명한 일반은총론에서 정초하고자 하였다. 카이퍼는 일반은총론을 개혁신학의 본론으로 도입함으로써 창조의 진행과 문화활동과 시민생활의 가능성을 일반은총으로써 설명하였다.²⁾ 카이퍼에 의하면 일반은총이란 타락한 창조를 죄에도 불구하고 보존하시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1. A. Kuiper, Lectures on Calvinism, 1898, Eerdmans, 1931, 1996, pp. 78~109.

2. 서철원, “카이퍼의 개혁사상과 한국신학” 改革思想, '89 창간호, 한국기독교사상 연구소, p. 68.

위해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이다. 그러므로 카이퍼는 문화활동이란 일반은총에 입각한 것으로 보았다. 문화란 우주의 발전과 그 유지를 위한 인간의 모든 노력과 노력의 결과를 포함한다. 이 하나님의 일반은총 없이는 어떠한 문화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일반은총이 저지하지 않는다면 죄의 과격성 때문에 창조는 해체되고 세계는 사멸되고 말 것이다.³⁾ 창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일반은총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은총이야말로 인간문화의 근본이 된다.⁴⁾ 인간과 세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일반은총을 부여받았다.⁵⁾

카이퍼는 그의 저서 「일반은총」(Gemeene Gratie) 1권에서 일반은총의 소극적인 측면 - 죄의 역제 - 을 다룬다. 일반은총은 영적이거나 재창조적이 아니고, 물질적이며 시간적이다.⁶⁾ 교회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래서 일반은총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에서 부터 흘러나온다. 일반은총의 활동은 죄의 과격한 세력과 죄의 무서운 결과가 저지되고 제어되게 하며, 창조가 진행되게 하고 시민생활을 가능케 한다. 일반은총은 피조세계를 발전시키고 역사와 문화를 가능케 한다. 일반은총은 인간의 행위나 반동에 구애됨이 없이 언제나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활동한다. 일반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가 연기된다.

일반은총은 아담타락시 낙원에서 役事하였다. 아담이 하나님앞에서 자기의 책임을 이브에게 전가하고 변명한 것이 다 일반은총의 役事に 의한 것이다. 카이퍼는 이 일반은총이 없었다면 죄의 세력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항거하였을 것 이라고 말한다. 이 일반은총은 죄의 근원을 제거하여 완전히 치유하고 회복하지 못하며, 단지 예수그리스도의 구속 즉, 특별은총을 위한 준비로서 役事한다. 일반은총은 이 세상 생활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나, 그 근원은 세상의 중보자되시는 그리스도이다.⁷⁾ 만물은 영원한 말씀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일반은총의 출발점은 피조물과 자연의 영역이다. 이 일반은총도 인간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누릴 권리가 없으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자비로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특별은총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⁸⁾ 일반은총이란 어두움 가운데 비취는 미광이다.⁹⁾

카이퍼는 「일반은총」 2권에서 일반은총의 적극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다. 일반은총은 소극적으로는 인간과 역사에 대하여 죄의 세력과 죄의 결과를 제어하지만 적극적으로는 문화의 형성자로서 역사에서 전진적으로 활동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역사형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구이며 그의 동역자이다.¹⁰⁾ 인간역사의 근본적인 것은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일반은총을 통하여 세계를 건축하시는 하나

3. A. Kuyper, Gemeene Gratie I, kampen, p. 213, p. 220.

4. A. Kuyper, Gemeene Gratie II, kampen, p. 28, pp. 630~631.

5. A. Kuyper, Het Calvinisme en de kunst, Amsterdam, 1988, p. 76.

6. Gemeene Gratie I, p. 86, p. 12, p. 296.

7. Gemeene Gratie II, p. 645.

8. Genry R.Van Til, The Calvinistic Concept of Culture, 이근삼역, 성암사, p. 169.

9. Gemeene Gratie I, p. 243.

10. Gemeene Gratie II, p. 606, pp. 507~509.

님의 섭리에 참여하여 문화적 활동을 하고 역사의 진보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인간역사는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와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기영광을 위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¹¹⁾ 여기서 일반은총 역시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와 경륜에 포함된다. 하나님의 일반은총없이 인간의 역사는 무의미하게 된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은총은 일반은총을 기초로 하여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은 지속되어야 하고 인간은 출생되어야 하고, 역사는 진보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일반은총이 필요하게 된다. 일반은총이 없으면 이 세상은 지속될 수 없고, 역사는 발전할 수 없으며,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 파멸될 것이다. 일반은총의 활동에 의하여 우주안에 잠재해 있는 창조의 힘이 열매를 맺게 되고, 역사의 고도의 발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¹²⁾ 카이퍼는 역사에 있어서 문명의 개화, 발전과 진보는 사단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반은총의 덕분이라고 말한다. 이 일반은총의 힘에 의하여 역사속에서 인간의 발전은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보여주는 것이 된다.¹³⁾

일반은총은 신자와 불신자에게나, 하나님의 자비를 누릴 수 있는 자와 그것을 누릴 자격이 없는 자나 오용하는 자에게 다같이 주어지는 공통적인 하나님의 은총이다. 문화주체자로서 인간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의식과 도덕성을 갖고 있는 것도 일반은총의 덕분이다. 카이퍼는 자연인이 영적인 선한 일을 행할수는 없다고 할찌라도 시인으로서 정의를 수행하고 도덕적 선을 행할 수 있다고 본다.¹⁴⁾ 하나님은 일반은총을 통하여 타락한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리하여 인간은 의학과 법률학을 발전시키고, 도덕적 자연적 선을 성취한다. 이러한 문화의 형성자로서 인간은 하나님의 도구요 동역자가 된다. 아담의 후에는 타락으로 인하여 문화의 기초가 되는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을 상실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반은총을 인간에게 부여하셨다. 그리하여 인간은 과학의 발전을 통하여 자연을 지배하는 능력을 회복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저주의 결과는 우주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일반은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나타난 열매는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게 된다.¹⁵⁾

일반은총의 적극적인 기능은 특별은총으로 하여금 활동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다. 일반은총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위하여 때가 차게 한다. 그리하여 이 세상을 존속시키고, 하나님아들이 성육신하여, 이 세상을 구속하도록 하고, 성령이 모든 육체에 부은바 되도록 하여 교회로 하여금 세계선교를 하도록 한다. 카이퍼는 일반은총으로 인해 이방세계와 불신세계가 다같이 문화적 활동을 함으로써 교회의 선교에 간접적으로 이바지한다고 말한다. 교회는 복음의 선포의 사명을 평화로이 수행할 수 있기 위하여 정부기관과 통치자를 필요로 한다.

11. Gemeene Gratie III, pp. 609~611.

12. 상계서, p. 118, Gemeene Gratie IV, p. 435.

13. Gemeene Gratie I, p. 253.

14. Gemeene Gratie I, pp. 252~253, Gemeene Gratie II, pp. 200~201.

15. Gemeene Gratie I, p. 458.

참조 : Henry R. Van Til, 상계서, p. 173.

카이퍼는 일반은총을 통한 두가지 수준의 문화적 발전을 말한다. 첫째 수준은 기술적이고 지적인 발전이고, 둘째 수준은 윤리적이고 영적인 발전이다. 기술적이고 지적문화가 높은 수준으로 발전함에 따라서 윤리적이고 영적인 문화는 점차 퇴보한다.¹⁶⁾ 역사진행과 더불어 기술문화는 발전하나 그리스도의 통치권과 왕국에 대한 저항의식은 점차 거세지게 된다. 이처럼 인간이 기술문화 발전과 더불어 신앙에 원수가 되고, 훼방하며 불신앙을 조장하는 현상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일반은총을 오용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¹⁷⁾ 카이퍼는 적그리스도가 인간의 기술적 지적 문화의 최고 정점에서 출현하게 될 것으로 본다.

2. 특별은총

특별은총은 일반은총의 기초위에서 役事해서, 일반은총의 능력에 자유를 주고, 선택된 죄인을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풀어주고, 악마의 노예상태에서 해방시켜 준다. 특별은총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이루어진 선택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화목이신 자비로우신 호의이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은 그의 자유로우신 주권적 은총을 통하여 선택된 죄인에게 부여된다. 그리스도의 구속役事は 성령의 役事を 통하여 선택된 죄인을 중생하게 하고, 성화시키고, 연단 속에서 보존하심으로, 구원받은 신자의 삶 속에서 효능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구속, 중생, 성화, 보존은 특별은총의 역사이다. 이 특별은총의 役事 속에서 선택된 죄인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 결합하여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된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는 새피조물이 된 삶속에서 주로 왕으로서 사랑의 힘으로 새 지배하게 된다.¹⁸⁾

카이퍼는 특별은총과 일반은총 사이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특별은총은 자연과 세계를 개발하고 유지함으로써 문화를 발전시키는 일반은총의 독자적인 목적을 전제한다.¹⁹⁾ 그러나 특별은총은 일반은총에 대하여 직접 간접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직접적 영향은 중생한 사람이 문화활동을 통하여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카이퍼는 인간을 두 부류로 구분한다. 그것은 正常論者(Normalists)와 非正常論者(Abnormalists)이다.²⁰⁾ 정상론자는 우주를 진화론적으로 이해한다. 우주란 영원한 진화에 의하여 가능태로부터 理想態(ideal)를 향해 진행한다. 이에 대해서 비정상론자는 우주를 창조론적으로 이해한다. 우주는 하나님의 창조에 의하여 생겨났다. 현재의 우주상태는 비정상적이며, 과거에 혼란이 일어났다. 오로지 중생하는 힘(a regenerating power)만이 우주의 최종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보증할 수 있다. 정상론자는 중생치 못한 자요, 비정상론자는 중생한 자이다. 정상론자는 불신앙의 세계관 속에서 죄의 세력과 결과를 인

16. Gemeene Gratie I, p. 415, pp. 432~433.

17. 상계서, p. 452.

18. A. Kuyper, pro Rego II, Het Konigsckap van Christus, Kampen 1911, pp. 130~131.

19. Gemeene Gratie II, pp. 275~278, Gemeene Grati III, p. 124.

20. Lectures on Calvinism, p. 132.

참조 : Henry R. Van Til, 상계서, p. 177.

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사는 자이나, 비정상론자는 신앙의 세계관 속에서 인간의 전적무능과 부패성을 인식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자이다.

중생한 새사람은 그리스도몸의 살아있는 유기체인 교회이다. 이 중생한 새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며 일반은총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창조섭리를 수행한다. 특별은총은 영적기원과 목표를 갖고 있으나, 인간삶 모든 부문에 침투하여 役事한다.

중생한 새사람은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새롭게 될뿐만 아니라, 정치, 교육, 결혼, 상업 등 사회적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변화반기에 이른다.²¹⁾ 그러므로 카이퍼는 하나님의 나라는 최후의 대심판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nunc et hic)도 나타난다고 피력한다. 유기체인 교회는 개인적 내지 조직적 통일체로서 일반문화영역에서 왕이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공통의 문화를 성취해야 한다. 말씀을 전파하고, 죄인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도록 하는 활동 외에 교회는 이 세상에서 이 기독교문화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해야 한다.²²⁾

특별은총이 일반은총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이란 인간 생활을 강화하며, 풍요하게 하며, 고상하게 하며, 삶을 번영하게 한다.²³⁾ 카이퍼는 구미 기독교나라의 식민지 지배를 통하여, 아시아나 남미의 식민지가 특별은총의 혜택을 입은 것을 예로 들고 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바라보는 언덕위에 세워진 도시가 되어 역사를 인간의 것으로 만들었고, 인간정신을 확대시켰다. 특별은총은 일반은총에 세례를 준다. 기독교 복음은 그것이 전파된 사회와 문화영역을 기독교화 한다.

3. 칼빈주의신앙의 문화적 투쟁

카이퍼는 특별은총이 일반은총의 영역에 미치는 직접적 기능에 있어서 기독교 신앙의 투쟁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이 투쟁이란 이세계와 우주와 인간과 과학에 대한 자연주의적이고 무신론적이고 정상론적 해석에 대한 창조론적이고, 유신론적이고 비정상론적 해석의 대결을 말한다. 카이퍼는 기술이나 논리나 과학과 기독교 신앙 사이에 대립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기술을 사용하는 인간의 태도, 논리를 사용하는 인간의 사고방식, 과학체계를 추구하는 인간의 학문적태도에 있어서 상반되는 두가지의 대립관계가 있다. 카이퍼는 신앙과 과학, 신앙과 기술 사이에 대립과 투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개의 과학체계 사이의 투쟁과 기술을 사용하는 인간의 상반되는 태도를 사이에 투쟁이 있는 것을 말한다.²⁴⁾

두가지 체계의 과학, 즉 유신론에 기초한 과학과 무신론 내지 범신론에 기초한 과학은 각자의 신앙과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대립 투쟁하게 된다. 여기서 신앙은 과학과 대립되지 않고, 모든 과

21. Gemeene Gratie I, p. 644, 684.

22. Pro Rege I, p. 370, p. 526, p. 567.

23. Gemeene Gratie II, p. 260, p. 275.

24. Henry R. Van Til, 상계서, p. 180, 정성구, 칼빈주의사상과 삶, 한국성서협회 1875, pp. 76~79.

학의 전제가 되고 있다. 신앙은 “인간의 모든 의식활동의 근본이 되는 영적생명의 기능 방식이다.” 그러므로 신앙은 경험적 내지 논리적 증명이 필요치 않는 행위의 출발점이다. 모든 합리적인 논증은 신앙에 의하여 수납되는 미증명의 공회에서 출발하고 있다. 카이퍼는 모든 생명은 신앙에서 나오며, 과학적 확신과 마찬가지로 모든 인격적 표현조차도 신앙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피력한다. 유신론이나 범신론은 다같이 그들 각자의 신과 세계에 관한 신념을 가지고, 각자의 신념에 기초한 체계를 세우고 안주하고자 한다. “결국 이 정상론자와 비정상론자의 과학체계는 서로 길을 나란히 걸어갈 수 있는 상대적인 적대자들이 아니다. 이 적대자들은 서로 다른 길을 택하는 것을 허락하면서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진지하게 전체의 생(the whole domain of life)을 지배하기 위하여 서로 싸운다. 그들은 서로의 대립되는 주장들과 그것들이 포함하고 있는 모든 지지자들의 전체 건물을 땅 위에 넘어뜨리기 위하여 피나는 노력을 단념할 수 없다.”²⁵⁾

여기서 카이퍼는 종교윤리영역과 과학영역이 서로 대립된다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종교윤리적으로 참된 것은 과학적으로 참되어야 한다. 예컨대 그리스도의 부활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하는 것처럼 종교적으로는 참되나, 과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참될 수 없다고 말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앙적으로 사건일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참된 사건이다. 카이퍼가 피력하고 있는 대립과 투쟁이란 신앙과 과학사이의 대립과 투쟁이 아니라, 두가지 다른 신앙들과 신념들 사이의 대립과 투쟁이고, 두가지 다른 과학체계 사이의 대립과 투쟁이다. 신앙과 과학은 서로 대립관계 속에 있기 보다는 모든 과학적주장의 근거에는 신앙과 신념이 전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카이퍼는 종교와 과학, 신과 우주에 대한 통일적 해석을 주장한다. 이 통일적 해석에는 세계관과 신앙의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적대관계와 투쟁이 있다. 카이퍼는 이 투쟁은 인간삶의 전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한다. 이 투쟁은 바로 정상론자와 비정상론자, 불신자와 신자, 사단의 추종자와 하나님 추종자 사이에 일어나는 화해될 수 없는 투쟁이다. 前者는 인간의 죄성, 믿음의 확실성과 성령의 증거를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이성과 도덕성을 절대적인 인식과 행위의 권위로서 주장한다. 이에 대해서 後者は 인간의 원죄성과 전적부패성, 성령을 통한 인간의식과 삶의 중생과 새로운 삶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증거를 인식과 삶의 절대적인 권위로서 받아들인다. “하나속에 발견되는 것은 다른것 속에는 결핍되어 있다. 전자는 타락에 관해 의식하지 못하고 따라서 정상적인 것(the normal)에 집착해 있다. 후자는 타락과 변화에 관한 체험을 가지고 있으며, 그래서 비정상적인 것(the abnormal)에 관한 지식을 그의 의식속에 소유하고 있다.”²⁶⁾

이 투쟁은 상대방의 체계가 완전히 허물어지고,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의식의 변화를 일으켜 돌이키기까지 종식되지 않는다. 양자사이에는 타협이나 양보가 있을 수 없고 전적승리나 전적패배나 만이

25. A. Kuyper, Lectures on Calvinism, p. 133.

26. 상계서, p. 137.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싸움은 과학분야 아닌 정신분야, 신앙과 신념과 세계관 분야에서 일어난다. 카이퍼는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사실들의 현재상태와 관련해서 우리는 물론 두종류의 인간의의식(two kinds of human consciousness)을 인정해야만 한다” 그것은 중생한 자의 의식과 중생치 못한 자의 의식이다. 이 둘은 일치하지 않는다.²⁷⁾ “인간의 고유의식이 그의 일차적진리(primum verum)요 모든 과학자들을 위한 출발점이어야 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논리적 결론이란 양자(필자註: 중생한 의식과 중생치 못한 의식)가 합의해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양자가 합의하도록 만드는 모든 노력은 실패로 돌아가도록 정해져 있다.”²⁸⁾

카이퍼는 신자들은 이세상에서 불신자들의 적대세력에 대항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세상의 불신세력들은 일반은총의 선물을 이용하여, 그리스도의 왕권에 저항하는 힘을 증가시키고 있다.

불신세력들은 사회적 기관, 그들의 재력, 권력, 언론, 각종 모임을 통하여 그들의 세계관을 확장시키고, 그리스도의 왕권에 도전하고 있다. 신자들은 가정이나 직장이나 각종 모임과 활동을 통하여 사회구성원의 하나이기 때문에 불신자들과 교류하지 않는 것은 사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카이퍼는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조직된 힘으로써 불신의 세력과 대결해야 했다고 주장한다. 신자들은 사회내에서 자유로운 조직을 통하여 노동, 산업, 교육, 과학, 예술, 정치 등의 각 영역에서 반기독교적인 조직체에 대항하는 기독교적 조직체를 구성해야 한다. 이것을 “조직적인 反立”이다.²⁹⁾ 이러한 기독교적인 조직체는 교회와 학교 다음으로 사회주도권을 잡고, 성공적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기구이다. 카이퍼는 믿는 형제를 세상법원에 송사하지 말라(고전 6:4), 믿지 않는 자와 명애를 같이 하지 말라(고후 6:14)라는 바울의 경고를 신자들이 사회공동체와 조직 안에서 독립된 기독교 조직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로서 제시한다.³⁰⁾

이 세상의 조직체는 제아무리 중립을 표명한다 할찌라도, 기독교적 원리를 미워한다. 이 세상의 조직체는 무정부주의나 사회주의의 원리 위에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카이퍼는 믿지 않는 사람과의 교제가 신자의 선한 행실을 부패케 한다는 바울의 경고를 여기에 적용한다. 신자들과 불신자들 사이에 생활의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칼빈주의자들은 부득불 달라 질 수 밖에 없다. 그것은 세상에 있어서 자기보존의 문제이다.”³¹⁾

카이퍼는 기독교적 조직체가 이 세상밖으로 나간다는 사상을 거부한다. 기독교자는 이 세상안에 있으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카이퍼는 이 사회 속에서 기독교자의 삼중적 사명을 피력한다. 첫째는

27. 상동

28. 상계서, pp. 137~138.

29. Henry R. Van Til, 상계서, p. 189.

30. Pro Regell, pp. 188~189.

31. 상계서, pp. 193~189.

교회의 구성원으로 생활하는 것, 둘째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사회안에서 생활하는 것, 세째는 사회의 복지를 추구하고 참여하는 것이다.³²⁾

첫째사명은 기독자가 조직화된 교회의 일원이 되어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둘째사명은 기독자가 이 사회안에서 불신세력에 반대하고 다른 신자들과 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것이다. 세째사명은 기독자가 이 사회안에서 불신자들과 공동적인 복지를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것이다. 예컨대, 운동경기, 민방위, 장기놀이, 요리강습, 자선사업, 산업활동, 민속놀이, 빈민구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스킨터와는 달리 카이퍼는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일반은총에 의해 부여된 신자와 불신자 사이의 공동의 영역을 인정하고 있다.

4. 칼빈주의 사상의 문화적 공헌

카이퍼 문화신학의 공헌은 정신의 원리로써 역사와 우주의 모든 과정을 설명하고자 한 헤겔의 관념론적 일원사상과 물질의 원리로써 이 모든 과정을 설명하고자 한 진화론적 물질사상에 반대하여 기독교 계시사상에 입각한 칼빈주의 세계관과 문화론을 제시한데 있다. 카이퍼는 칼빈이 제시한 일반은총의 개념을 문화신학의 원리로써 발전시켰다. 일반은총은 역사와 세계를 가능케 하고, 인간의 문화적 활동을 가능케 한다. 일반은총은 기독교문화가 산출되는 환경과 조건과 테두리가 되며, 특별은총이 작용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일반은총은 궁극적으로 특별은총에 의해 능가되고, 결실된다. 그의 일반은총론은 불신자들의 중립적 문화관을 수용하지 않고, 단지 불신자와 신자사이의 공동영역을 인정하고 있다.

카이퍼는 칼빈주의가 과학의 발전에 공헌하였다고 역설한다. 카이퍼는 칼빈주의와 과학의 한계에 있어 네가지점을 지적한다. “첫째, 칼빈주의는 과학을 장려했으며 또 장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둘째, 칼빈주의는 과학에게 고유한 영역을 회복해 주었다. 세째, 칼빈주의는 과학을 비자연적 구속으로부터 해방했다. 네째, 칼빈주의는 불가피한 과학적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추구하고, 찾았다.”³³⁾ 구체적 예로서 오렌지(William Orange)공은 학문에 대한 사랑과 장려의 표시로서 라이덴(Layden)대학을 설립했다. 칼빈주의 예정론사상은 만물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과학적 연구를 활발히 하도록 하는데 기여했다. 과학도 우주와 세계에 대한 통일적 견해, 조화, 안정과 질서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칼빈주의사상은 우주의 구속자인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써 과학으로 하여금 본연의 자세를 돌아가도록 했다. 만물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만물이 그리스도의

32. Henry R. Van Til, 상계서, p. 190.

33. Lectures on Calvinism, p. 110.

구속을 통하여 썩어짐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 아들의 새창조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성서의 메시지는 과학으로 하여금 이 우주와 세계를 종말론적지평에서 보도록 한다.

칼빈주의사상은 교회로 하여금 특별은총의 영역에서 역사와 우주의 구속을 선포하도록 하는 과학으로 하여금 일반은총의 영역에서 자연과 세계를 탐구하고 정복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적사명을 다하도록 하였다.³⁴⁾

카이퍼는 칼빈주의 사상이 예술의 발전에도 공헌했다고 역설한다. 카이퍼는 예술을 지고의 예술가(the Supreme Artist)고 “지고의 건축가”(Master Builder)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예술적 은사의 결과로서 이해한다. 예술이란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 아름다운 것으로 정하신 질서이다. 창조주하나님이 만물을 선하고 아름답고 질서있게 만드신 그 행위가 본래적예술이고 인간의 예술적 재능은 그를 모방하는 것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실재를 창조하시고, 인간은 비실재적예술의 창작품을 창조한다. 예술이란 피조물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이 그의 창조주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반사하는 것이다.

카이퍼는 그러므로 다음같이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패션(fashion)에서 하나님의 솜씨를 모방한다. 우리는 건축기념비에서 일종의 우주를 창조하며, 조각에서 자연의 모습을 장식하며, 회화에서 선과 색조를 사용하여 대상을 생생하게 함으로써 생을 재성하며, 음악과 시에서 신비의 영역을 交感한다.”³⁵⁾ “美란 인간의 상상이나 주관적지각의 산물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완전하심의 표현이며, 객관적실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술은 가능할 수 있다.

“예술은 죄많은 세상이 제공하는 것보다 큰 높은 실재를 우리에게 계시한다.” 카이퍼는 헬라적이상인 자연의 모방에 하나의 진리가 있는 것을 인정한다. 그것은 “자연에 의해 보여지는 형식과 관계는 항상 모든 현실적 실재의 근본적인 형식과 관계가 되고 또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주의이다. 여기에도 카이퍼의 일반은총의 사상이 깔려져 있다. 관념론은 이 사실주의의 측면을 놓치고, 환상의 놀음으로 빠진다. 그러나 이 경험적 사실에 철저한 사실주의는 이 현실배후에 있는 이상적 현실을 간과하고 있다.

여기서 카이퍼는 예술에서 해석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한다. 자연주의적 입장에 의하면 이 세계는 절대선의 실현이기 때문에 더이상 높은 실재가 없으며, 예술은 단지 자연을 복사하는 기능에 지나지 않는다. 범신론적 입장에 의하면 이 세상은 점진적 과정에 의하여 불완전한 상태에서 완전한 상태로 나아가며, 예술은 다가오는 삶의 미래적 측면의 예시이다. 이에 대해 칼빈주의 입장은 이 세상이 처음에는 아름다웠으나 저주에 의하여 파멸되었고, 마지막재난에 의하여 온전한 영광으로 되돌아가서 낙원의 아름다움을 능가할 것으로 본다. 여기서 “예술은 창작에 있어서 상실된 아름다움과 앞으로 다가올 온전한 광채에 대한 기대를 우리 마음속에 일깨워주는 신비스러운 사명을 갖는다.”³⁶⁾

34. 상계서, pp. 126~129.

35. 상계서, p. 156.

36. 상계서, p. 155.

카이퍼는 칼빈주의사상이 예술을 교회의 종교적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켰다는 사실을 역설한다. “칼빈주의는 교직적 화려한 예배의식(sacerdotal wealth)보다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더 좋아 했다.” 칼빈주의의 “도덕적 진리성은 예술의 여신을 위하여 성별되는 어떤 희생도 불사하는 자들의 감각주의(sensualism)와 충돌했다.”³⁷⁾ 아테네의 만신전(Parthenon), 로마의 만신전(Pantheon), 비잔틴의 지혜신전(the Saint Sophia), 쾰른의 성당, 바티칸의 베드로 사원 등 고대의 웅대한 건축물들은 종교적 정치적 지배계층이 백성들에게 강요한 종교양식의 결과였다. 이 건축물들에 있어서는 예술이 종교적 지배아래 속박되었다. 종교개혁은 예배의식의 존재를 벗어버리고,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복음정신에 따라서 교회를 영적 영역에, 예술을 세속적 영역에 귀속시켰다. 여기서 “세속적 영역”이란 무신론적 불신앙을 의미하지 않고 다만 종교적 지배 내지 제사직의 지배 밖의 영역을 의미한다.³⁸⁾ 그리하여 칼빈주의는 예술을 종교적 영역에만 국한하지 않고 인간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시켰다. 예술은 영혼 뿐만 아니라 신체를 포함한다. 영혼과 신체가 다같이 인간을 흠에서 창조하시고, 그의 호흡의 불어넣으신 구주에게 속하기 때문이다. 예술은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특정신분의 사람들에게 뿐만아니라, 모든 평범한 소시민들을 위하여 존재한다.

카이퍼는 예술에도 과학에서처럼 공동적인 중립성을 띤 기술적인면을 인정하고 있으나, 예술의 영역에 있어서도 영의 투쟁을 지적한다. 예술가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는지 아니면 사단의 지배를 받는지 한다.³⁹⁾ 예술가의 정신성과 영감은 건축, 회화, 조각, 노래와 음악에 있어서 선택된 주제, 예컨대 권위, 제국, 자유, 천국사상, 수빈, 부활, 성육신 등과 표현방식에 따라서 나타난다. 카이퍼는 칼빈주의가 예술을 종교의 지배로부터 독립시켰기 때문에 그자체적인 예술형식을 발전시키지 않았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칼빈주의정신은 “예술에 도취된 예배와 예배에 영감받은 예술의 결합”(the wedding of art-inspired worship with sorship-inspired art)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⁴⁰⁾

카이퍼는 악마적인 것에 지배되는 예술일지라도, 그것을 역시 예술로 인정한다.⁴¹⁾ 그러나 이 예술은 적그리스도적인 것이다. 이에대해 카이퍼는 기독교예술의 이념을 제시하고 있다. 예술이 헬라적 이교적 인생관과 자연관과 세계관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열린 새로운 자연관, 세계관, 인생관을 제시할 때 그것은 기독교 예술이다. 기독교 예술은 비극을 그릴 때에도 희랍적 정신(예컨대 오르테우스신화 등)에 의해 지배받지 않고, 예수그리스도의 골고다의 카다르시에 의해 영감받아야 한다. 기독교예술은 소망을 그릴 때 희랍적정신(예컨대 영혼의 상기설)이 아니라, 예수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에 의해 영감받아야 한다.

37. 상계서, p. 145.

38. Robert E. Webber, *The Secular Saint*,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9, 이승구역, 기독교 문화관, 엠마오, pp. 128~136.

39. Appendix to *Gemeene Gratie*, pp. 89~90.

40. *Lectures on Calvinism*, p. 146.

41. *Pro Regell*, p. 579.

5. 문화적 낙관주의

카이퍼의 문화신학은 일반은총을 그리스도의 왕권아래 둠으로써 일반은총으로부터 중립적문화 아닌 그리스도 통치의 문화를 건설하는데 크나큰 공헌을 하였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역사속에 있다. 그의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는 종말에서 뿐만 아니라, 현 역사속에서, 인류 문화의 구속자이다. 그리스도의 왕권은 일반은총의 역사속에서 현존하는 실체이다.⁴²⁾ 카이퍼는 일반은총이 창조의 중보자인 그리스도로부터 기원하고 있으며, 특별은총은 구속의 중보자인 그리스도에게서 기원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그리하여 양자는 서로 밀접하게 관계하며, 서로 작용하고 있다.⁴³⁾ 일반은총은 인간의 문화활동을 가능케하고, 특별은총은 영원한구원을 위하여 작용한다. 특별은총은 문화활동을 하는 인간의 영혼을 중생케하여, 문화활동을 이기적인 욕구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왕(Regum)이 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도록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이퍼와 문화신학은 일반은총을 특별은총보다 더 강조하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은 카이퍼가 일반은총없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이 세상이 파멸할 것이며, 일반은총없이 인간이 범 죄할 때 영과 육이 다같이 멸망할 것으로 표명하는데서 나타나고 있다. 카이퍼는 하나님의 일반은총 없이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살 수 없다고 주장한다. 헨리 반틸(Henry Vantil)이 비판하고 있는 것처럼 일반은총이 이 세상을 존속케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특별은총은 이 세상의 존속과 보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가?⁴⁴⁾

이러한 일반은총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카이퍼로 하여금 문화적 낙관주의에 빠지게 했다. 카이퍼는 요한계시록 21장 24절의 말씀 “땅의 왕들이 자기영향을 가지고 거기로(팔자 註: 새예루살렘) 들어오리라”를 인용하면서 열국의 영광이 새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문화적 낙관주의를 주장한다. 카이퍼는 지상의 존귀한자들 중에 회개한 자들이 저들의 문화적 보물을 그리스도의 발아래 갖다 놓으면 영원까지 우월하다고 주장한다. 문화의 씨는 새예루살렘에서도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점에 있어서 카이퍼는 문화적 종말론을 주장한 스킨더의 입장과 확연히 달리, 문화적 낙관론을 견지하고 있다.

필자의 견해에 의하면 우리가 성서가 증거하는 종말론적 심판, “그날에는 하늘이 큰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벧후 3: 10) “그날이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땅을 바라보도다.”(벧후 3: 12~13)는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문화적종말론의 입장을 수용해야만 한다고 생각된다. 이 세상문화는 비록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었다 하더라도 궁

42. Gemeene Gratie II, p. 341, p. 355.

43. Gemeene Gratie I, p. 321.

44. Henry R. Van Til, 상계서, p. 195.

극적이 될 수 없고, 단지 다가오는 영원한 하나님나라에서 새롭게 창조된 문화를 증거하는 하나의 像의 역할만을 한다.

III. 스킬더의 기독교적 문화론

1. 일반명령론

클라스 스킬더(Klaas Schilder, 1890~1952)는 카이퍼이후 화란개혁주의 신학전통에 있어서 최대의 문화신학자이다. 카이퍼가 문화활동을 일반은총론에서 끄집어내고 있는데 반해서, 스킬더는 일반명령론에서 끄집어 낸다.

스킬더는 “일반은총”이란 개념을 부정한다. 일반은총이란 개념은 마치 기독교와 비기독교 사이에 중립적인 활동지대를 제공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스킬더는 경고한다. 스킬더는 이 중립적인 공동영역이라는 개념까지도 거부하고 있다. 문화영역은 신자와 불신자가 공유하는 중립적인 공동작업장이 아니다. 문화영역은 일반은총의 영역이 아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교회의 두 대립하는 세력사이에 하나의 완충지역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스킬더에 따르면 신자와 불신자는 하나의 문화영역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라는 공동작업장을 가진다. 이 공동작업장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자연영역이지 공동의 문화영역은 아니다.¹⁾ 문화적 충동과 사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모든 인간, 신자나 불신자를 막론하고 공통적이다. 그리고 자연은 문화활동의 토대고 자료로서 공통적이다. 그러나 스킬더는 문화적 활동과 자연의 사용에 있어서 신자와 불신자는 서로 대립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본다.

“오늘날도 자연은 하나지만 자연의 사용은 이중적이다. 자료는 하나지만, 그것의 작용은 이중적이다. 분야는 하나지만 그 발전은 두 종류이다. 문화의 자극은 하나지만 그 노력은 두가지이다.”²⁾

스킬더는 일반명령론에서 문화활동을 설명한다. 아담이 창조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이란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문화적 사명이다. 이 일반명령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यो, 참된 종교요, 본래적인 우주의 질서이다. 이 우주의 질서 안에서 자연을 개발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위임받았다는 데서 인간의 문화적 충동과 노력이 나온다.

인간은 자연을 개발하고 그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을 드러내고, 잠재해 있는 것을 개발하고 결실하도록 함으로써 하나님의 同役者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은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으나, 完製品으로

1. Klaas scilder, Watois de Hemel, Kampen, 1935, p. 289.

2. Llaas Scilder, Christus en Cultuur, Franeker, 1935, p. 76.

참조 : Henry R. Van Til, The Calvinistic Concept of Colure, 이근삼역, 성암사, p. 206.

만드시지 않고, 인간이 그것을 개발하고 발전하도록 지으셨다. 만물은 성장하며, 인간도 발전해야 하나 자연이나 인간자체가 궁극적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이상숭배이다. 자연과 인간의 존재목적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다.

첫째 인간,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고 사단과 관계를 맺었다. 그리하여 인간은 창조 본래의 하나님 형상에서 타락하였다. 그 결과로서 인간은 스스로를 사랑하고, 문화도구를 사랑하게 되었다. 인간은 문화활동의 목적인 하나님영광에서 떠나서 도구와 방법만을 추구하고, 집착함으로써 무익한 종이 되었다. 죄는 분리와 단절을 가져왔다.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종교와 문화 사이에 분리가 야기되고, 관계의 단절이 일어났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질서 자체는 죄의 결과에 의해서 소멸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창조질서는 행위계약에 의해서 인간에게 부여된 일반적 명령이고의 무이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는다. 이 행위계약이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이다.

타락한 세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화현상이란 일반은총의 덕분이 아니다. 또한 스킨더는 죄의 억제란 일반은총의 덕분이라고 보는 카이퍼의 견해에 반대한다. 죄의 억제란 시간에 고유하게 내포되어 있다. 타락 후 시간의 연장이란 일반은총의 덕분이 아니다. 스킨더는 하나님이 하늘과 지옥에 들어가는 선택받는 자와 유기된 자의 수를 다 채우기 위하여 시간을 연장했다고 본다. 스킨더에 의하면 “단순한 시간의 연장은 축복도 저주도 아니고 다만 역사가 진행되고 문화가 개발될 수 있는 기초일 뿐이다.”³⁾ 그러므로 타락 후 시간의 연장이나 자연의 발전이란 일반은총이 아니라, 자연적 과정의 일부일 뿐이다. 이 자연의 발전이란 하나님이 창조시 행위계약에 의해 인간에게 부여하신 문화적 본능의 결과이다.

인간은 환경을 개발하고 가꾸고 다스리는 문화적 본능을 부여 받았다. 이 문화적 충동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연적 재료를 가공하여 유용하고 편리한 것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인간들이 서로 같이 살 수 있는 공동사회를 이루도록 하였다. 그러나 타락후 이 문화적충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영광을 추구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스킨더는 “시간속의 자연은 본래부터 운동과 발전을 내포했다”고 말한다. 계획하고 실현하는 것은 역사과정에 속한다. 문화적 충동이란 자연의 과정으로부터 역사에서 하나님 활동의 전제와 토대가 된다. 따라서 순수한 시간연장이나 단순한 문화활동을 하나님이 주신 일반은총으로 간주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본다.⁴⁾ 스킨더는 먹고 마시고 아기를 낳고, 인간이 문화적 충동을 가지는 것은 자연의 내재적과정으로서 그 자체에는 은총도 저주도 아니다. 모든 사람, 즉 신자와 불신자에게 골고루 미치는 일반은총이란 없다.⁵⁾ 단지 이 자연의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 즉 신앙으로 하느냐? 불신앙으로 하느냐? 하는 인간의 태도에 따라서 문화현상에 있어서 대립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3. Henry R. Van Til, 상계서, p. 203.

4. K. Scilder, Christus en Cultuur, p. 63.

5. 상계서, p. 64.

스킬더는 문화를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이라는 넓은 전망에서 이해한다. 문화를 아름다운 자연, 훌륭한 교향악, 연극과 텔레비와 관련시키는 것은 너무 좁게 이해하는 것이다. 문화는 에덴동산에서의 명령과 약속과 위임 그리고 실락원에서 복락원에 이르는 먼 여정에서 하나님이 창조시 명령, 약속, 위임 하신 것을 포함한다. 이 문화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다.⁶⁾

스킬더는 하나님이 섭리가운데서 죄에 대한 그의 진노와 저주를 너그럽게 하였기 때문에 불신자들도 공동인간성에 기초해서 단편적인 문화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기초하지 않은 문화는 완성되거나 성취되지 않는다. 스킬더는 현대에 와서 불신앙의 문화가 확장되고 있다고 말한다. 불신앙의 문화는 문화의 궁극적인 목적보다는 기구에만 치중하며, 인간의 욕망과 이성의 자량과 안목의 정욕을 충족하고자 하고 있다. 스킬더는 마지막때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발명과 기술을 이룩할 것으로 본다. 이 적그리스도의 문화는 하나님의 최후심판때 불타없어질 것이다.

2. 문화의 열쇠인 그리스도

스킬더는 일반명령론에서 문화활동을 해석하고 있으나, 인간의 타락이후의 문화란 신앙의 문화와 불신앙의 문화를 대립과 투쟁으로 나타낸 것을 지적한다. 스킬더는 헤겔의 관념론이나 현대의 변증법적 신학자들의 현실관을 비판하고 신앙과 불신앙, 은총과 죄의 대립을 역설한다. 스킬더는 신과 역사과정을 동일시 하는 헤겔의 범신론사상을 거부하고, 창조된 하늘이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질적구분이 있다는 근본사상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다고 역설한다. 스킬더는 키에르케고르, 바르트, 브룬너, 티리히 등이 하나님과 인간, 영원과 시간, 계시와 이성 사이에 건널 수 없는 질적차이와 대립이 있다고 주장하는 변증법적 신학의 착상을 거부한다. 스킬더는 하나님과 인간은 결단코 분리될 수 없으며, 양자의 분리는 항상 보다 깊은 연결의 기초위에서 있다고 역설한다.⁷⁾ 스킬더는 하나님과 자연, 하나님과 역사, 하나님과 피조물, 은총과 자연, 계시와 이성, 종교와 문화 사이에는 동일관계나 대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단지 죄와 은총,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신앙과 불신앙사이에 대립이 있을 뿐으로 본다.

스킬더는 문화를 위한 문화를 인정하지 않는다. 칸트가 말하는 순수이성이 없는 것처럼 순수문화도 없다. 순수문화란 상상적인 실재일 뿐이고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의 문화적 본성은 하나이지만, 문화적활동은 인간타락후 두가지 대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스킬더는 순수문화에서 출발하지 않고 신앙의 결단에서 출발한다. 세계영혼이나 세계이성

6. 상계서, p. 287.

7. K. Scilder, Wat is de Hemel, p. 60, p. 61, p.121.

참조 : 정성구, 칼빈주의사상과 삶, pp. 94~99.

이니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문화적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 하는 것이 기독교적 문화 성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인류의 사회에서 신비로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이 기독교 문화이다”⁸⁾ 스킨더에 있어서 참된 문화의 열쇠는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는 타락된 문화, 불신앙의 문화를 치유하고,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고 참된문화, 기독교문화를 성취하신 분이다.

키에르케고르가 역사속에서 역사적 예수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불가지론을 주장한 것에 대해 스킨더는 반대하면서, 그리스도는 역사의 중심에 서 있으며, 역사는 그리스도를 높이는데 의미와 목적이 있다고 역설한다. 역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구속 행위를 위한 테두리이다. 하나님은 자연과 역사를 정리하지 않으시고 그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의 죄와 불신앙을 정죄하여 자연과 역사를 창조 본연의 목적으로 회복시킨다. 이것이 문화의 구속이요 참된 문화의 비결이다. 하나님의 기름 부름 받은 그리스도는 우리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대신 감당하신 제이의 아담이다. 제이아담(the Second Adam)인 그리스도는 창조시 첫째아담에게 부여하신 문화적 명령과 사명을 대신 성취하였다. 그리스도는 기름부음받은자로서 어떠한 새로운 것을 가지고 오시지 않고 처음부터 있었던 것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첫째아담에게 명령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실제로 성취시키기 위해 오셨다.⁹⁾

카이퍼가 일반은총의 원리로부터 문화를 설명하고 있는지 반해서 스킨더는 일반명령의 원리로부터 문화를 설명하며, 그리스도를 문화의 구속자로 해석한다. 인간타락후 하나님의 행위계약에 근거한 창조의 일반명령은 불신자에게 까지 공동인간성에 기초해서 단편적인 문화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인간 문화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사단의 굴레속에서 자기영광만을 추구하는 부패한 문화가 되기에 이르렀다. 첫째, 그리스도는 歷史에 들어오셔서 십자가의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 심판과 진노를 가라앉게 하셨다. 둘째,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순종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시므로 인류와 역사를 구속하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원자요, 문화의 구속자이다. 그리스도는 에덴동산에서 시작된 인간의 공동체를 자기의 보혈로 사서 새로운 질서를 향해 나가도록 힘을 주시고 문화를 구속하셨다. 그리스도는 타락으로 인해 불순종과 자기 영광의 추구속에 있는 인간과 역사를 새롭게 하고 온전하게 함으로써 인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케함으로써 첫째아담의 마음속에 심겨졌던 문화적 충동과 과업을 완성하기에 이른다.

카이퍼는 교회가 일반은총에 의존해 있는 것으로 보았고, 교회는 그래서 이세상에 발붙일 곳을 찾는다고 보았으나, 스킨더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구속에 의하여 택한자를 이세상에서 교회로 모으고, 참된 문화의 누룩이 되게 하는 한 이 세상은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¹⁰⁾ 그리스도는 불신앙의

8. 상계서, p. 93.

9. 상계서, p. 129.

10. 상계서, p. 290.

인간을 순종하는 신앙의 인간으로 만듦으로써 불신앙의 문화를 신앙의 문화로 회복하신다. 로마제국의 부패한 문화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소수의 무리였으나, 건전한 문화의 누룩이 되었고, 건전한 종교의 누룩이 되었다. 종교개혁도 부패한 기독교의 개혁 뿐만 아니라 문화의 개혁이었다. 루터는 카타린과 결혼하여 행복된 가정을 만들고, 식탁에서 즐겁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으므로 독일어 성서번역에 있어서 생생한 독일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칼빈도 제네바에서 기독교신앙에 입각한 신정정치를 함으로써 기독교문화를 건설하였다.¹¹⁾ 칼빈은 기독교아카데미, 기독교국가 등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지배되는 기관을 사회속에서 창립하는데 공헌하였다.

스킬터는 참된 문화의 건설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곳에서 이루어진다고 역설한다. 하나님 없는 문화는 결단코 완성되거나 성취되지 않는다. 참된 문화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이웃상호간에 신뢰에 기초해서 건설된다.¹²⁾ 이 참된 문화는 인간을 새롭게 하시고, 완전하게 함으로써 이세상에서 문화적사명을 수행하도록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총을 통하여 참으로 건전하고 궁극적인 진리인 하나님의 왕국안에 있는 안식을 지향하는 조화된 문화체제를 건설하신다.¹³⁾ 그리스도는 참된문화의 원천이시며, 개개인들을 신앙안에서 교제하도록 하시며 하나님의 왕국을 지향하는 목적론적인 문화공동체를 만드신다.¹⁴⁾

기독교문화건설에 있어서 인간은 단지 그리스도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데서 비로소 그 가치를 가진다. 이것은 전체주의를 말하지 않는다. 전체주의는 개인이 전체 속에서 자기의 개성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불신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회개하여 그리스도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 그럴때 비로소 인간은 문화의 규범인 그리스도의 신상수훈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참된문화의 건설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3. 문화적 종말론

스킬터는 카이퍼의 문화적 낙관주의나 경건주의자들의 문화적 금욕주의를 거부하고, 문화적 종말론의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문화적낙관주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일반은총으로부터 문화활동을 이해함으로써 인간의 죄적부패의 심각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반은총의 원리에서 발전된 문화는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바로 들어간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서 문화적금욕주의는 인간의 죄적 부패성을 지나치게 심각하게 받아들임으로써 문화영역에서 인간의 활동에 대해 매우 소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11. K. Scilder, *Christus en Cultuur*, p. 71.

12. 상계서, p. 75.

13. 상계서, pp. 87~88.

14. 상계서, p. 88.

스킬더의 문화적종말론은 이 세상에서 신자가 문화적사명을 다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스킨더는 카이퍼의 문화적 낙관주의에 대해서 이 세상은 에덴처럼 하나님의 동산이 아니며, 문화적 금욕주의에 대하여 이 세상을 낭만적인 기분에 젖어 종교생활을 하는 어떤 비밀처소가 아니라고 말한다. 이 세상은 신자들이 일해야 할 처소이며 싸워야 할 투쟁장이요 건설해야 할 장소이다.¹⁵⁾ 하나님을 만나야 할 처소는 매일의 생활처소이다. 이 하나님의 광장은 그가 일하시는 지역이며 우주처럼 넓은 곳이다. 이 하나님의 광장에는 신자들의 일터와 공장이 있고, 김나는 가마와 연구실과 실험실이 있다. 스킨더는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모든 선을 행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인 영광의 건축을 위하여 성실하게 각자의 돌을 운반해야 할 것을 강조한다.

스킬더는 영국의 영광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그리하여 땅의 모든 왕들이 그들의 문화적보물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발아래 갖다놓는다는 카이퍼의 문화적 낙관론을 반대하고, 문화적 종말론을 주장한다. “문화적 참된 가치는 예술작품이나 현대적 발명에 있지 않고 긴장의 과정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적그리스도와 싸울 전쟁터를 마련하는데 있다.” 그러함으로써 “하나님은 택한자의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예수그리스도의 능력안에서 세상을 이기게 하는 그의 목적을 완성하신다”¹⁶⁾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예술품이다.

여기서 스킨더는 문화의 가치를 문화자체의 완성과 성취라는 견지에서 보다는 문화의 구속이라는 종말론적 견지에서 평가하고 있다. 스킨더는 현세계가 파국적인 종말에 의하여 새세계, 즉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종말론적 입장을 역설하고 있다. 파국적인 종말사건이란 이 세상이 그 영화를 가지고 새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정욕적인 부와 영화와 더불어 불심판으로 없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스킨더는 카이퍼의 전율적인 서사시를 그의 종말론적 심판 사상에 근거해서 비판한다. 세계의 완전이란 진화적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종말론적 비약을 통하여서만 이루어진다.¹⁷⁾ 스킨더는 하늘나라의 완전성과 무결성에 있어서는 예수와 바울이 말한바대로 인간육체가 근본적으로 변하여 남자와 여자 같은 것이 천국에는 없으며, 모두 천사와 같이 된다고 역설한다. 하늘나라에서는 성욕이나 발육이 없어지기 때문에 결혼이나 음식도 필요하지 않다. 스킨더는 따라서 현세상은 급변적인 비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게 될 것을 강조한다.

스킬더에 의하면 주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종말론적 심판의 날에 이 세상 정욕에 가득한 불신의 문화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타서 없어지게 될때 신자들은 문화적 산물의 손실을 슬퍼하지 않고, 다가오는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종말론적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 스킨더는 이

15. Henry R. Van Til, 상계서, p. 216.

16. K. Scilder, Christus en Culturur, p. 305.

참조 : Henry R. Van Til, 상계서, p. 216.

17. K. Scilder, 상계서, p. 64, p. 67, p. 298.

종말론적인 심판때 해와 달과 별이 하늘에서 꽃잎 떨어지듯이 떨어질때 이 세상의 문화는 손발없는 앙상한 象만 남을 것이다.¹⁸⁾ 그러므로 스킨터는 이세상 문화의 진정한 목적을 환기시킨다. 이 세상 문화는 자기자신의 명예나 정욕이나 영화를 위해 있지 않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위하여 있다.¹⁹⁾ 이것이 세상문화의 궁극적 의미와 목적이다.

IV. 맺는말

카이퍼와 스킨터는 현대의 개혁주의 신학자로서 일반은총과 일반명령론에 기초하여 인간의 문화활동을 설명하려 한 점에 있어서, 경건주의사상과 근본주의 신학 그리고 변증법적 신학이 도외시한 문화영역에 대한 기독교 신앙의 사명을 강조한 점에 있어서, 개혁주의 교회와 신자가 현대의 역사와 사회속에서 참여와 문화의 구축을 이행하도록 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카이퍼는 일반은총을 긍정적으로 시인하면서, 일반은총을 문화활동의 신학적 기반으로 보았다. 스킨터는 일반은총을 부인하고, 일반명령만을 인정하면서, 일반명령을 문화활동의 자연적 토대로 보았다. 양자는 그러나 일반은총이나 일반명령에 기초한 문화활동은 그리스도의 구속은총에 의하여 치유되고, 새롭게 변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이런점에 있어서 양자는 문화유형론에 있어서는 어거스틴, 칼빈 등의 전통을 이어 받고 있는 문화변혁론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이퍼는 일반은총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열국의 영광이 새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문화적 낙관론을 폈으나, 스킨터는 이세상 문화는 파국적인 종말에 의하여 새하늘과 새땅에 들어간다는 문화적 종말론을 주장하고 있다. 성서적 개혁주의 전통에 충실한다면 우리는 문화적 낙관론에 동의할 수 없고, 문화적 종말론에 찬성해야 할 것이다. 이 세상의 문화는 궁극적인 가치를 가질 수 없고 지나가는 잠정적인 가치 속에 있으며, 다가오는 하나님나라의 영원한 문화를 반영시킴으로써만 비로소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스킨터가 일반은총개념을 부정하고, 신자와 불신자 사이의 공통적 중립지역을 부정하고 있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 스킨터는 카이퍼가 주장하는 일반은총의 개념을 일반명령개념으로 대체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은총을 떠나서 자연적 과정이나 문화적 충동으로 있는 일반명령 자체가 어떻게 존립할 수 있는가? 타락후 시간의 연장이나 자연의 발전, 문화적 충동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이상 일반명령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일반은총개념 속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 일반은총을 부인하는 스킨터는 따라서 일반명령을 주장함으로써, 그도 일반은총을 암암리에 인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스킨터는 일반명령에서 나타는 인간의 문화적 활동이 인간의 이기적인 자기영화를 추구하게 되었

18. 상계서, p. 85.

19. 상계서, pp. 300~307.

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점은 수용할만 하다. 스킨더는 그리스도를 문화의 열쇠로 봄으로써, 일반은총에서 문화의 적극적 의미를 발견하는 카이퍼보다 더 개혁신학적 입장에 충실하고 있다. 카이퍼는 일반은총을 강조하고, 신자와 불신자 사이의 공통적인 중립지역을 설정하면서, 이세상 문화와 칼빈주의사상 사이의 접촉점을 부각시켰다. 이점에 있어서 카이퍼는 개혁주의 전통에 충실하였다. 그러나 문화적 낙관론은 개혁주의적 전통에 충실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가 인간의 전적 부패성을 인정한다면, 이세상의 문화가 비록 그것이 그리스도의 구속에 의하여 회개한다 할찌라도, 세에루살렘 속으로 들어간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문화는 종말론적 심판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깨뜨려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새로운 신률적 문화가 비로소 우리에게 선사될 것이다.

기독교적으로 변화된 이 세상문화는 다가오는 하나님의 영원한 신률적 문화를 지시하는 잠정적인 희미한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복음으로 변화된 세상 문화와 하나님나라 문화 사이에 놓여있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동시에 인정해야 한다. 연속성이란 복음으로 새롭게 된 이세상 문화는 하나님나라의 문화를 반영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하는 정의, 사랑, 공평, 자유, 행복, 복지, 이상향의 가치와 질서는 다가오는 하나님나라의 온전한 정의, 사랑, 공평, 자유, 행복, 복지, 이상향의 가치와 질서를 반영하고 있다. 불연속성이란 복음으로 새롭게 된 이세상 문화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의하여 성취되는 하나님나라의 문화 속에서 심판되고, 더 높은 차원에서 지양된다. 복음으로 새롭게 된 복음 문화는 그 영원한 실체의 현현앞에서, 마치 태양빛 앞의 촛불이나 전등처럼 그 빛과 광휘를 상실하고, 영원한 문화의 실체 속에서 지양되게 될 것이다. 기독교 문화는 다가오는 하나님나라 문화의 영원한 실체를 반영하는 잠정적인 像이고 순례자요 이정표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